

자료실		
등기		문번호
98 2/29	A9	5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97년 5월 21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매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그날 새벽, 18년간 남편의 구타를 견디다 못한 윤선화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선화씨와의 면담, 그 가족과의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윤선화씨가 18년간 계속된 남편의 극악무도한 구타로 인해 이미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가족 해체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96년 10월 30일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은 정치적 사안에 밀리고 국회의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심의 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게 가정폭력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이 해체되는 주 원인으로, 청소년 비행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발생의 주요 요인인 가정폭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청소년 비행과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96년 4.11 총선시 여야 각당은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공약한바 있으며, 96년 말 각 당 대표 면담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총선 공약용이나 전시용이 아닙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가정폭력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방지법'은 한가닥 희망의 빛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폭력없는 가정,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1. 국회는 가정폭력방지법 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2.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가정폭력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3. 정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라!

1997. 7. 9.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